

〈제 753호〉

#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 광주은행

### ◆전국체전서 ‘보이스피싱 예방’ 합동 캠페인 펼쳐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목포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및 전국 장애인체전 기간 동안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 및 지역 금융회사들과 함께 목포 종합경기장 홍보부스 등을 이용해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합동 캠페인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광주은행은 개회식 당일 목포종합운동장 인근에서 방문객 및 체육대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가두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즉시 대응조치, 불법사금융 피해유형 및 대응요령을 담은 책자와 홍보물을 지역민들에게 일일이 전달하며 홍보활동을 펼쳤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이번 합동 보이스피싱예방 캠페인을 통해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이 제고되길 바란다”며, “광주은행은 FDS(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운영을 통해 피해사례를 분석 및 사전 모니터링에 반영해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2023년 4분기 경영전략회의 개최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18일, 본점 3층 KJ 상생마루에서 2023년 4분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는 여신, 수신, 비이자이익 등 각 부문별 우수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2023년 3분기 경영실적과 4분기 중점 추진전략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에 따른 경기둔화 가속화 및 대출이동제 실시, 인터넷은행 중심의 주택 담보대출 시장 재편이 예상되는 등 어려운 영업환경에 처해있다”며, “내실 성장을 지속해 온 광주은행이 위기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2023년 4분기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FINISH LINE이 아니라, 2024년을 준비하는 START LINE으로써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광주신세계

### ◆청년 유망 작가 지원 전시 개최



광주신세계(대표 이동훈)는 1996년부터 광주와 전남지역의 역량 있는 작가를 발굴해 지원하기 위한 미술제를 열고 있다.

오는 31일까지 지난해 광주신세계 미술제에서 대상을 받은 정정자 작가의 개인전을 연다.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는 "품격 있는 전시와 함께 청년 중심의 신진작가들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문화 플랫폼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시본부

### ◆산업현장 합동 안전점검 캠페인 전개



광주지역 안전문화실천추진단(단장 양정열 광주 지방고용노동청장)은 19일 안전일터 조성을 위하여 유관기관 합동 건설현장 안전점검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광주지역 안전문화실천추진단에서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4월부터 대규모 아파트 건설현장 24개소와 추진해오고

있는 안전점검 릴레이 캠페인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안전보건공단 김무영 광주광역시본부장은 “우리지역 건설업 및 제조업 사업장들이 스스로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해 안전을 점검하고, 안전문화 확산에 동참해주셔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산업현장에 이러한 의미있는 안전활동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전남대학교 병원

### ◆'광주, 헬스케어의 중심' 메디헬스산업전 참여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안영근)이 시니어코스 메디케어실증센터와 개방형실험실 구축사업단이 최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광주 메디헬스산업전’에 참가했다.

개방형실험실 구축사업단은 보건의료인프라연계 창업지원사업 통합홍보관을 전남대병원이 주관해

전국 4개 병원(경상국립대병원, 고려대구로병원, 동국대일산병원, 이대목동병원)과 각 주관기관 참여기업 7개사가 협력해 운영했다.

안영근 전남대병원장은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남대병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번 산업전을 통해 창업기업의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며 “제품 개발 및 홍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병원 기반 보건의료 인프라연계를 활용, 병원과 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 ◆대한이비인후과 종합학술대회 개최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안영근)이 전남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가 주최한 제29차 대한이비인후과 종합학술대회가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한이비인후과 종합학술대회는 이비인후과학과 내의 분과는 물론 관련 연구회의 학문적 교류와 회원 간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국내 최대의 행사로 매년 봄과 가을에 열리고 있다. 안영근 병원장은 “각 분야의 연구자들이 다양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고, 의료 현장의 사례연구와 혁신적인 해결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며 “이를 통해 새로운 지식과 통찰력을 얻고, 선후배 동료 간의 교류와 소통의 기회를 만끽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 한전KPS

### ◆ 한국품질만족지수 12년 연속 1위



한전KPS(사장 김홍연)가 2023년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발전설비 정비서비스 부문에서 12년 연속 1위 기업에 선정됐다.

한국표준협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품질경영학회가 후원하는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Korean Stan-

dard-Quality Excellence Index)는 품질의 우수성 및 만족도를 고객과 전문가가 직접 평가하는 국내 대표 품질 만족 평가 종합지표다.

김홍연 한전KPS 사장은 “올해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1위 기업 선정은 전사적 품질 혁신 활동 노력이 고객가치를 창출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No.1 품질경쟁력으로 고객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으로 나아가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 ◆ "탄소중립 이행 총력"...한전KDN·KPS '친환경' 경영 박차



한전KPS(사장 김홍연)가 E-순환거버넌스와 ‘폐전기·전자 제품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E-순환거버넌스는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폐전기·전자 제품의 친환경 재활용 촉진 및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공익법인이다.

한편 한전KPS는 ESG 경영 실천을 위해 올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이행 ▷에너지절약 친환경 캠페인 ▷노후 발전소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성능개선사업 확대 ▷연료전지·태양광·소수력·풍력 등 신재생 발전설비에 대한 정비업무 수행 등을 추진 중이다.



### 해양에너지

#### ◆ GRESB 인증 3Star 획득



(주)해양에너지(대표이사 정희)가 세계 최고의 ESG 평가기관인 ‘GRESB(Global Real Estate Sustainability Benchmark) 2023’에서 88점(100점 만점, 평균 83점)과 ‘3Star’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GRESB는 부동산과 인프라 자산 운용 기업을 대상으로 ESG 성과를 평가하고 지속가능성을 매년 평가하는 국제기관이다. 주요 평가 항목으로는 ESG 목표 설정 여부,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목표 설정 여부, 지역사회공헌활동 등이 있다.

정희 해양에너지 대표는 “GRESB 평가는 ESG 경영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이번 평가를 통해 ESG 실태를 점검 할 수 있었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ESG 실행 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하며,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 알 림 >

본란은 본회 회원사 소식을 게재하고 있사오니 대표 동정, 행사, 제품 소개 등 기타 홍보하실 내용을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 : 최 수 용 대리

○ e-mail : gjef3425@naver.com

### <제1624회 금요조찬포럼>

#### 2024 하반기 경제전망

(김광석 실장)

1624회 금요조찬포럼은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실장을 초청하여 「2024 하반기 경제전망」을 주제로 2024년 기업경영환경과 국제정세, 투자유망국가 등을 이야기하였다.

경영자는 시대를 구분해야 합니다. 2008년 금융 위기가 왔을 때 금리를 제로금리까지 내립니다. 이걸 완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또 현재처럼 높은 물가를 잡기위해 금리를 끌어 올리는 걸 긴축의 시대라고 합니다. 경영자는 경제적 시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 하듯이 경영도 시대를 구분해서 투자와 긴축을 조율해야 합니다.

최근 저성장 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는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많을거라 예상합니다. 물가가 잘 안잡히는 이유는 국제유가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의 50%이상이 석유제품입니다.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현상태를 유지할것으로 보이지만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확대될 경우 유가는 100달러를 초과할 거라 예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금리는 2024년에는 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제가 어려워도 돈은 항상 높은 수익성을 찾아 실시간으로 이동합니다. 최근 중국 경제가 급격하게 침체되고 있습니다. 2024년 중국 경제는 올해보다 더 안좋을것로 예상합니다. 그 이유는 글로벌 선진국들이 중국을 대체할 아시아 신흥국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생산기지를 알타시아(Altasia)국가(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로 새롭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알타시아 국가를 보면 고물가, 고유가 시기에도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공급망의 30%를 담당하던 중국은 경제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영자의 의사결정 관점에서도 신시장 개척, 신규수출 지역 설정, 해외공장건설 등 투자관점에서 어느지역을 우선 고려해야하는 고민해봐야 합니다.

멀리뛰기 선수인 비머네스크 선수가 올림픽 결승전날 자포자기 심정으로 술을 마시고 동료에게 경기를 포기하겠다고 말하자 동료가 이렇게 조언해 줍니다. ‘지금 너의 다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해, 지금 이 순간 내 몸은 깃털처럼 가벼워, 네 마음엔 날개가 달려 있어’ 이 조언을 듣고 세계 신기록을 경신합니다. 지금 경영환경이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총 회원분들이 잘 이겨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 1. 경제 동향

#### ◆ 경총, 「2023년 상반기 규모 및 업종별 임금인상 현황 분석」 발표 (10.15)

- 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규모 및 업종별 임금인상현황 분석」\*에 따르면, 올 상반기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총액 인상률은 2.9%로 작년 상반기 인상률 6.1%에 비해 낮아짐.

\* 분석 통계 : 고용노동부 2021~2023년 1~6월 누계 사업체노동력조사(근로실태부문)

\*\* 상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거나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 이하 분석은 모두 상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음.

① **(전체 월평균 임금총액 인상률)** 2023년 상반기 월평균 임금총액(초과급여 제외)은 395.8만원으로, 전년 동기(1~6월) 대비 2.9% 인상된 것으로 조사됨. 이는 작년 같은 기간 인상률('22.상반기 6.1%)과 비교해 3.2%p 낮아짐. 이러한 임금 인상률 둔화는 2011년 이후 가장 높았던 작년 특별급여가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됨.

- 임금 구성항목별로 보면, 기본급 등 정액급여\* 인상률은 4.0%로 작년 인상률('22.상반기 4.1%)과 유사한 수준인데 반해, 성과급 등 특별급여\*\*는 오히려 4.0% 감소한 것이 올해 상반기 전체 임금 인상률의 둔화를 초래하였음.

\* 정액급여 :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 기타수당 등으로 지급한 총액

\*\* 특별급여 : 성과급, 고정상여금 등으로 지급한 총액이나, 주로 성과급의 크기에 따라 변동

② **(규모별 임금 인상률)** 사업체 규모별로는 올 상반기 300인 미만 사업체 인상률이 지난해 상반기 대비 2.8% 인상되어 300인 이상 사업체 1.9%보다 높았음.

- 규모별 전년 인상률과 대비하면, 올 상반기 임금총액 인상률은 300인 이상('22.上 9.8% → '23.上 1.9%)과 300인 미만('22.上 4.8% → '23.上 2.8%)에서 모두 둔화되었음.

- 규모별 · 임금 구성항목별로 보면, 올 상반기 정액급여의 전년 동기 대비 인상률은 300인 미만과 300인 이상이 각각 3.9%, 4.0%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특별급여는



### Ⅲ. 노동경제동향

300인 이상과 300인 미만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으며, 감소율은 300인 이상이 -3.2%, 300인 미만이 -7.0%로 나타났다\*.

\* 규모별 정액급여 인상률이 유사한 상황에서, 300인 미만 사업체 특별급여 감소율이 300인 이상 사업체보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총액 인상률은 300인 미만 사업체가 더 높았던 이유는 특별급여가 300인 미만 사업체보다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임금총액 대비 비중이 월등히 높기 때문임.

③ **(업종별 임금 인상률)** 2023년 상반기 월평균 임금총액 인상률은 업종별로 차이가 컸음. 전기·가스·증기업의 임금총액은 올 상반기 9.3% 인상되어 조사대상 17개 업종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였으며, 금융·보험업은 유일하게 전년 상반기보다 2.0% 감소\*했음.

\* 이는 금융·보험업의 임금총액 대비 특별급여 비중은 31.7%로 17개 업종 중 가장 높고, 올해 상반기 금융·보험업의 특별급여 감소율이 11.8%에 달했기 때문

- 업종별·임금 구성항목별로 보면, 작년 상반기 대비 정액급여 인상률은 업종별로 최소 2.0% ~ 최대 6.9%, 특별급여 인상률은 최소 -38.1% ~ 최대 32.6%로 나타났다.

④ **(업종별 임금 수준)** 올 상반기 금융·보험업은 전년 동기 대비 유일한 임금총액 감소 업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월평균 임금총액 자체는 740.2만원으로 조사대상 17개 업종 중 가장 높았음. 반면, 숙박·음식점업은 금융·보험업 임금총액의 33.6% 수준에 불과한 248.9만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 한국은행, 「경제상황 평가(2023.10월)」 발표 (10.19)

- 국내경제는 소비 회복세가 다소 더딘 모습이나 수출부진이 완화되면서 완만한 성장세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금년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치(1.4%)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
- **(소비자물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말 3%대 초반으로 낮아지고 내년에도 완만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 다만, 높아진 국제유가와 환율의 파급영향,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으로 물가의 상방 리스크가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 하는 시기도 당초 예상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

### Ⅲ. 노동경제동향

○ **(경상수지)** 경상수지는 수출부진 완화로 3/4분기중 흑자 폭이 확대되었으나 4/4 분기에는 에너지 수입 증가로 흑자 폭이 줄어들면서, 연간으로는 지난 전망치(270억 달러)에 대체로 부합하는 흑자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

○ **(고용)** 취업자 수 증가규모는 3/4분기중 완만한 둔화흐름을 보였으며, 향후에도 지난 전망에 대체로 부합하는 둔화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

※ 취업자 수 증감 추이(전년동기대비, 만명) :

39.7('23.1q)→ 34.6(2q)→ 26.3(3q)→ 21.1(7월)→ 26.8(8월)→ 30.9(9월)

#### ◆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발표 (10.19)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수준(3.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

※ 한국은행은 2022년 1월(1.25%), 4월(1.50%), 5월(1.75%), 7월(2.25%), 8월(2.50%), 10월(3.00%), 11월(3.25%) 일곱 차례, 2023년 1월(3.50%) 한 차례 인상하였으나, 2월, 4월, 5월, 7월, 8월, 10월에는 동결 결정

-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상승률이 구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물가 및 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물가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의 증가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

#### ◆ 통계청, 「2023년 9월 고용동향」 발표 (10.13)

○ 2023년 9월 취업자는 2,869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0만 9천명(1.1%) 증가

※ 취업자는 2021년 3월(31만 4천명) 이후 31개월 연속 증가.

- **(산업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1만 8천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6만 7천명), 숙박 및 음식점업(6만 6천명) 등의 취업자는 증가했으나, 제조업(△7만 2천명), 부동산업(△3만 6천명), 도매 및 소매업(△1만 7천명) 등의 취업자는 감소

※ 도매 및 소매업은 2019년 6월(△4만명) 이후 52개월 연속 감소

### Ⅲ. 노동경제동향

- **(연령별)** 60세 이상(35만 4천명), 30대(5만 6천명), 50대(4만 5천명) 등에서 취업자가 증가했고, 20대(△8만 6천명), 40대(△5만 8천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감소
- 고용률(15세 이상)은 63.2%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 ※ OECD 기준(15~64세) 고용률은 69.6%로 전년동월대비 0.7%p 상승
- 실업자는 66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2천명(△6.0%) 감소
- 실업률은 2.3%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했고, 청년(15~29세) 실업률은 5.2%로 전년 동월대비 0.9%p 하락
- 전체 체감실업률\*은 8.5%로 전년동월대비 1.4%p 하락했고, 청년(15~29세) 체감실업률은 16.3%로 전년동월대비 2.1%p 하락
  - \* 실업자에 시간 관련 추가 취업자와 잠재 경제활동인구까지 합한 개념
- 비경제활동인구는 1,607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만명(△0.7%) 감소했고,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는 67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 1천명(△9.5%) 감소
  - ※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전년동월대비 1만 1천명 증가한 224만 8천명을 기록했고, 구직단념자는 전년동월대비 4만 5천명 감소한 38만명 기록

#### ◆ 한국은행, 「2023년 9월 수출입물가지수」 발표 (10.17)

- 2023년 9월 수출물가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가운데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등이 오르며 전월대비 1.7% 상승(전년동월대비 8.9% 하락)
  - ※ 수출물가는 2023년 1월(△1.2%) 이후 9개월 연속 하락(전년동월대비 기준)
  - \* 원/달러 평균환율(원) : 1,318.47('23.8월) → 1,329.47('23.9월) [전월대비 0.8% 상승]
- **(농림수산물)** 전월대비 1.3% 하락(전년동월대비 16.4% 하락)
- **(공산품)**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1.7% 상승(전년동월대비 8.9% 하락)

### Ⅲ. 노동경제동향

- 2023년 9월 수입물가는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광산품, 석탄 및 석유제품 등이 오르며 전월대비 2.9% 상승(전년동월대비 9.6% 하락)

\* 두바이유(월평균, 달러/bbl) : 86.46('23.8월) → 93.25('23.9월) [전월대비 7.9% 상승]

※ 수입물가는 2023년 7월(0.2%) 이후 3개월 연속 전월대비 상승

▸ 최근 수입물가 추이(% , 전월대비) : △3.1('23.5)→ △3.9(6)→ 0.2(7)→ 4.2(8)→ 2.9(9)

- (원재료) 광산품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5.7% 상승(전년동월대비 13.6% 하락)

- (중간재)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등이 오르며 전월대비 2.0% 상승(전년동월대비 8.9%하락)

- (자본재 및 소비재) 자본재는 전월대비 0.7% 상승했고, 소비재도 전월대비 0.7% 상승 (자본재 전년동월대비 1.8% 하락, 소비재 5.7% 하락)

#### ◆통계청, 「202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발표 (10.17)

##### 〈 2023년 상반기 취업자의 산업별 특성 〉

- (산업소분류별) ‘음식점업’ 163만 1천명(전체 취업자의 5.7%),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 143만 6천명(5.0%), ‘작물재배업’ 137만 3천명(4.8%) 순으로 많았음.
- (산업중분류별) ‘음식점 및 주점업’ 211만 8천명(전체 취업자의 7.4%), ‘소매업; 자동차제외’ 201만 6천명(7.1%), ‘교육서비스업’ 190만 7천명(6.7%) 순으로 많았음.
- (산업대분류별) 대졸 이상 취업자 중 전공계열별 산업대분류별 취업자 구성비를 보면 교육, 예술, 인문학계열은 ‘교육서비스업’ (교육 53.3%, 예술 15.2%, 인문학 16.6%) 이 많았고, 자연과학, 공학계열은 ‘제조업’ (자연과학 17.9%, 공학 27.8%)이 많았음.

##### 〈 2023년 상반기 취업자의 직업별 특성 〉

- (직업소분류별) ‘경영관련사무원’ 240만 8천명(전체 취업자의 8.5%), ‘매장판매종사자’ 162만 5천명(5.7%), ‘작물재배종사자’ 131만 3천명(4.6%) 순으로 많았음.
- (직업중분류별) ‘경영 및 회계관련 사무직’ 415만 8천명(전체 취업자의 14.6%), ‘조리 및 음식서비스직’ 172만명(6.0%), ‘매장판매 및 상품대여직’ 165만 6천명 (5.8%) 순으로 많았음.

### Ⅲ. 노동경제동향

#### 〈 2023년 상반기 임금수준별 임금근로자 특성 〉

- **(임금수준별)** 200~300만원 미만 임금근로자 비중은 33.7%, 400만원 이상은 24.0%, 300~400만원 미만은 21.3%, 100~200만원 미만은 11.9%, 100만원 미만은 9.1% 순으로 나타났음.
- 400만원 이상은 전년동기대비 3.9%p, 300~400만원 미만은 1.8%p 상승하였고, 100~200만원 미만은 4.0%p, 200~300만원 미만은 1.4%p, 100만원 미만은 0.3%p 하락하였음.



## 2. 노사 동향

### ◆ 경사노위 및 고용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사회적대화 등이 쟁점화

- 2023년 국정감사가 10. 10부터 진행중인 가운데 환노위는 10. 17 경사노위 및 고용부 소속기관 국정감사 개최

※환노위국정감사항후일정: 고용부 및 경사노위 종합 국정감사(10. 26)

- 경사노위 및 고용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사회적대화 운영, ▲최저임금 인상 등 주요현안에 대한 질의응답 진행
- 특히 야당은 사회적대화가 한국노총의 불참으로 중단된 것에 대해 경사노위 위원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 반면, 여당은 노동계가 사회적대화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
-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노동계와의 만남 등을 시도하고 있으며, 사회적대화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
- 한편, 이 날 환노위 국정감사에는 최근 민주노총을 탈퇴한 안동시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탈퇴 배경 등에 대해 발표
- ※안동시공무원노조는지난8. 29 민주노총탈퇴의결
- 안동시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조가 조합원의 처우 개선보다 정치투쟁에 몰두해 탈퇴를 결정했으며, 탈퇴와 관련해 공무원노조와 법적 분쟁을 진행 중이라고 발언

### ◆ 주요 완성차사 임단협이 마무리 되어가는 반면 철강업계는 임단협 난항 지속

- 기아차 노사는 10. 17 16차 본교섭에서 임단협 합의
- ※기아차 노조는 10. 20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진행 예정

### Ⅲ. 노동경제동향

- 임단협 합의안에는 ① 기본급 111,000원 인상, ② 경영성과금 300% + 800만원 ③ 생산판매 목표 달성 격려금 100% 및 특별 격려금 250만원 등이 포함
- 특히 기아차 노사는 금번 임단협에서 쟁점이 되었던 단협상 우선 채용 조항을 삭제하고, 신규 인력 채용 및 퇴직자 재고용 제도 1년 연장에 합의○ 반면, 포스코 노사의 임단협 난항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사는 10. 16 중노위 1차 조정회의에 이어 실무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 없이 종료
- ※포스코 노조는 ① 기본급 13.1% 인상, ② 자사주 100주 지급 등을 요구
- ※포스코 노사는 10. 19 중노위에서 2차 조정회의 진행

#### ◆ 한국노총은 근로시간면제 제도 관련 노조법 개정 요구

- 한국노총은 10. 18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과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금번 정기국회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
- ※이수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21명은 10. 10 노조법 개정안 발의
- 노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최저기준으로 변경, ▲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급여 지급시 부당노동행위 간주 규정 삭제 등임.
- 한편, 여당은 10. 17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고용부 실태조사를 통해 논란이 되었던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근로시간면제 사용실태 관련 문제 제기
- ※ 고용부는 지난 9. 4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등 실태조사’(대상 : 근로자 1,000인 이상 유노조사사업장 480개)를 진행하고, 위법 확인 사업장 등 200개를 대상으로 근로감독 진행
- 여당은 노조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해 불법으로 임금을 받고 있으며, 전체 공공기관의 근로시간면제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